

서 면 질 문

○질문분야 : 울산숲 관리 및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하여

질 문 내 용	비 고
<p>울산숲(기후대응 도시숲)의 일부 구간이 지난 2024년 1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. 울산숲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따라 울산시계부터 송정지구까지 13.4ha, 6.5km에 달하는 대규모 선형 도시숲으로, 사업비만 122억3천800만원이 투입된 우리 구 핵심사업입니다.</p> <p>향후 백년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내다보고 조성된 숲인 만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,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</p> <p>다만,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도시숲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숲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, 어떻게 지역주민을 위한 명소로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우려섞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</p> <p>따라서, 저는 울산숲 관리 및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느티나무, 메타세콰이어, 단풍나무 등 2만4천120그루의 각기 다른 수종을 관리하는 데는 장기적으로,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. 또한,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, 화장실 등 편의시설 구축도 필요함. 이와 관련하여 울산숲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성화 계획을 답변바람.2. 당초 울산숲 조성 계획에서는 이화정 구간과 신천 구간, 호계 구간과 송정 구간 사이에 각각 울산시가 추진하는 ‘바람길숲’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음.	

질 문 내 용	비 고
<p>이화정·신천 구간 사이 중산IC지구 바람길숲의 조성이 마무리된 것과 달리 호계·송정 구간 사이 바람길숲은 여러 문제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 구간에 대하여 울산시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바람.</p> <p>3. 현재 열섬효과를 차단해 기온을 낮추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도시숲이라는 의견이 많아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될수록 도시숲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.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(WHO)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최적 면적을 15m²으로 권장하고 있는데, 올해 예정된 울산숲 송정구간 조성이 완료되면, 북구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, 추가로 울산숲 혹은 도시숲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.</p> <p>울산숲은 우리 구에 터잡을 주민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. 울산숲을 누리는 주민이 많아질수록,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지역소멸과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</p> <p>종합적이고,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울산숲이 백년을 넘어서 울산을 대표하고,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,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/p>	